제 60호 교육철학 쓰기

지난 호에는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교수님께서 하셔야하는 선택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호에는 계속해서 교육 철학(teaching philosophy)*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각자 독특한 교육철학을 지니고 계십니다. 교육학을 정식으로 배우시거나 혼자 틈틈이 공부하신 교수님께서는 자신의 교육철학이 어느 교육학파에 속하는지 까지 아시겠지요. 하지만 아마 많은 교수님께서는 자신의 교육철학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의식을 하던 안 하던 교육철학은 교수님의 강의 스타일이나 학생과의 관계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강의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교육철학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자신의 교육철학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냥 생각하기보다는 글로 써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써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논문 같이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A4용지 한 장 정도면 족합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교수가 승진심사를 받을 적에 교육철학을 써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쓴 내용을 지금 와서 다시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육철학 대신 제 업적을 나열하기 급급하였더군요. 승진 심사용 서류라서 타인을 의식하여 "선전"위주로 썼나봅니다. 하지만 제가 권하는 "교육철학 쓰기"는 어느 누구도 아닌 자신만을 위한 글입니다. 아이오아대의 허겐 교수는 네 가지 내용을 적어보라고 권합니다.

1. 목적 --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 쓰는가?
여기에는 가능한 추상적이거나 미화된 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거시적 교육목표"(큰그림)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새시대 교수법 p. 97 참조).

2. 방법 --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고자 하는가?
동일한 교육목적도 가르치는 과목이나 수강생 수가 다르면 다른 방법을 써야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3. 측정 -- 목적 성취도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교수님께서 무엇을 얼마큼 "가르쳤는가"는 비교적 덜 중요하고, 그 대신 학생들이 무엇을 얼마큼 "배웠는가"를 어떻게 판단할지를 서술하셔야 합니다.

4. "남을 가르치는 일"이 자기 자신에게 왜 중요한가?
이 질문을 다르게 해본다면 "당신은 왜 교수가 되었습니까?" 또는 "당신은 교수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교육철학을 적어 놓고 보면 교수님께서 강의실에서 하시는 행동 하나 하나에 의미가 있음을 의식하게 됩니다. 신조가 깃 든 강의는 마음을 편하게 해 줍니다.

<<편집 코너>>
"Teaching"이라는 영어 단어를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자주 번역되어 쓰이는 "강의"는 teaching의 한 방법에 불과하며, "교육"은 그 반대로 너무 광범위합니다. "가르치기"가 가장 적합한 듯 하나 teaching philosophy를 "가르치기 철학"이라고 써 놓고 보니 뭔가 어설픈 느낌이 들었습니다. 적절한 번역을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조벽, 2000